

## 사탄의 독백과 지옥의 내면화: 『낙원상실』의 정치성에 대한 소고

김선형 (세종대학교)

### I.

본 논문의 목적은 『낙원상실』(*Paradise Lost*) 4권 초입에 드러나는 사탄의 독백을 정독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밀튼(John Milton)의 서사시가 담보하는 정치성과 문학성의 면면에 대해 평단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주요 쟁점에 반응하고 생산적인 첨언을 하는 데 있다. 각각의 쟁점들은, 첫째, 소위 “정적주의”(quietism) 논의의 맥락에서 『낙원상실』 마지막의 비전, 즉 “내면의 낙원”(paradise within)이 내포하는 정치성의 본질을 사탄의 독백 속에 드러나는 사탄 마음속의 지옥과 비교하며 짚어보고, 둘째, 허구적 인물로서 사탄의 형상화가 지닌 매혹의 근원을 『낙원상실』 전체가 기대고 있는 문학적 재현 양식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밀튼의 산문을 참조해 사탄의 묘사가 위치하는 역사

적/정치적 맥락을 짚어보는, 일련의 논의를 통해 차례로 제기되고 다루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 중점적 분석의 대상으로 특히 4권 초반에 나타난 사탄의 독백 부분을 골라낸 이유는, 이 대목이 본고에서 거론하는 쟁점들에 깊이 연루되어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쟁점들이 결국 온전히 하나의 논의로 이어지는 기제를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로서 정치성과 문학성, 그리고 윤리적 성찰이 별개로 존재할 수 없는 밀턴 특유의 시 담론 역학을 대표할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II.

제임슨(Fredric Jameson)은 『낙원상실』에 드러나는 “내면으로의 전환”이 “정치학에서 심리학과 윤리학으로의 전이”를 보여주며, “사적이고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 “천년왕국주의”를 포기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소위 밀턴의 ‘정적주의’(quietism) 논의에 새삼 불을 당겼다(37). 그리고 『낙원상실』의 정치성에 대한 제임슨의 의혹은 그로스(Kenneth Gross)가 다음 사탄의 발언을 인용해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이어진다.

마음은 그 나뭇의 독자적인 장소이며, 그리고 그 자체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도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바꿀 수도 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라. 만일 내가 여전히 변치 않는다면.

The mind is its own place, and in it self  
Can make a Heav'n of Hell, a Hell of Heav'n.  
What matter where, if I be still the same. (1.254-6)<sup>1)</sup>

1) 밀턴 산문의 경우 모든 인용은 *The Complete Prose Works of John Milton*, ed. Don M. Wolfe (New Haven: Yale UP, 1982)에 의거한다. 그리고 『낙원상실』과 『낙원회복』의 텍스트는 Merritt Y. Hughes가 편집한 *John Milton: Complete Poems and Major Prose* (Indianapolis: Odyssey, 1957)를 사용했다. 한글 번역은 필자의 것이다.

그로스는 객관적 물리적 환경과 무관하게 불변하는 마음으로 주관적 심리적 자족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상기한 사탄의 발언에 내포된 논리가 12권에서 대천사 마이클(Michael)이 아담에게 전달하는 신의 계시인 “내면의 낙원”의 비전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고 있다(339). 만약 그렇다면, 『낙원상실』 최후의 2권에서 천년왕국설의 파산이 선고되고 “사유화되고 탈정치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제임슨의 주장도 한층 힘을 얻는 셈이다. 마음이 물리적 세계와 무관한 독자적인 장소로서 완전한 자치권을 확보한다면, 또한 그것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된다면, 외부세계의 객관적 변화는 큰 의미를 담보하기 힘들다. 이러한 논리는 단순히 사적이고 탈정치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 피억압자들에게 아편과 같은 패배주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신역사주의 비평가인 패터슨(Annabel Patterson) 역시, “내면의 낙원”이라는 개념에서 이러한 정치적 체념과 무기력을 읽어내고, 이 개념은 님로드(Nymrod)의 폭압에 대한 언급과 같은 공화주의적 코드를 위장하고 검열을 피하기 위해 심어둔 눈속임이라고 치부함으로써 밀튼의 정치적 급진주의를 애써 구출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264).

그러나 밀튼에게 있어 “내면의 낙원”은 공적 영역의 개혁을 포기하는 사적 구원의 모토도 아니고 급진적 공화주의의 진의를 가리는 위장전술도 아니며 오히려 『낙원상실』과 그의 정치사상을 연결하는 핵심적 개념으로서 객관적 물리적 세계의 항구적 변혁을 꿈꾸는 비전이다. 『낙원상실』의 내면성을 제임슨, 패터슨, 또는 그로스와 같은 소위 ‘정치적’ 비평가들이 오독하는 기제는, 밀튼의 정치적 한계를 입증하기보다는 밀튼의 정치가 그들의 정치와 갈라지는 지점을 더 선명하게 명시한다. 특히 윤리/심리와 정치를 이항대립으로 놓고 있는 제임슨의 사고방식은 유물론적 계급혁명가가 아니라 기독교 인문주의자였던 밀튼에게 적용하기에는 여러 모로 적당하지 않은 기준이다. 『낙원상실』에서 지양하거나 지향하는 인간의 내면적 상태는, 창생하는 부르주아 계급의 탈정치적이고 사유화된 심리가 아니라, 정치적 윤리적 주체의 자기통어(self-government)라는 전통적인 르네상스 인문주의 정치학의 화두와 훨씬 더 긴밀한 연관이 있다. 또한 이 서사

사에서 인간의 내면과 세계가 맺는 관계는, 사적 구원 속에서의 정치적 체념이 아니면 공공영역의 정치활동에 적극적 참여라는 식의, 단순한 ‘행위’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층위를 지닌다. 그것은 바로 재현의 문제이다.

『낙원상실』의 거대한 서사는 실제로 전우주적 갈등구조가 점차 피조물의 마음속으로 편입되는, 꾸준한 “내면으로의 전환”을 향해 흘러간다. 거대한 지옥의 창생과 혼돈의 동요, 천지창조와 천국의 내전, 인간의 유혹과 타락으로 이어지는, 상상력을 뛰어넘는 성경의 역사와 우주의 동요는 결국 아담의 타락이라는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서 절정을 맞는다. 서사시 전체를 통해 신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으로 전환되고, 초월적 비전은 인간의 역사적 시선으로 전환되며, 천국과 지옥과 에덴이라는 지리적 로쿠스(locus)는 상응하는 심리적 토포스(topos)들로 전환된다.

4권에 등장하는 사탄의 독백은 지리적 로쿠스가 심리적 토포스로 전환되는, 『낙원상실』 전편의 움직임을 잘 보여준다. 낙원에 입성한 사탄이 처음으로 발견하는 것은, 바로 어느새 자기 마음속에 또아리를 튼 지옥의 존재다. 주위를 둘러싼 아름다운 낙원의 풍광과, 사탄이 느끼는 참담한 불행과 고통의 심리적 지옥은 강렬한 아이러니를 보인다. 과연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그 자체로 실재하는 장소임을 사탄에게 잔인하게 입증해 보인 셈이다.

#### 공포와 의심으로

어지러운 그의 생각은 더욱 어지러워지고, 밑바닥으로부터  
그 안의 지옥이 꿈틀거리네. 그는 마음속에 지옥을  
가지고 다니고, 그의 주위에 퍼뜨리고,  
행여 장소를 바꾼다 한들 지옥으로부터  
단 한 발짝도 도망갈 수 없다.

horror and doubt distract

His troubled thoughts, and from the bottom stir

The hell within him, for within him hell

He brings, and round about him, nor from hell

One step no more from himself can fly  
By change of place. (4.18-24)

그러나 사탄의 마음이라는 이 장소는 그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불변과는 거리가 멀다. 타락한 대천사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한 ‘지옥’은 일련의 내적 갈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공고해진다. 사탄의 타락은 일거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매순간 타락한 존재로서 사탄이 내려야 하는 선택의 결과로 진행되는 점진적 과정이다. 이 과정은 곧 그의 내면에 남은 신의 피조물로서의 “찬란한 본질”(bright essence; 4.44)과 새롭게 꿈틀거리는 “그 안의 지옥”(4.20)이 겨루는 알레고리적인 싸움이다.

독백의 초입부에 사탄은 신의 빛인 태양으로 인해 양심과 기억을 자극받아, 괴로운 자성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신을 “천국의 비길 데 없는 왕”(heav’n’s matchless King; 4.41)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찬란한 본질”을 창조하신 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이 바쳐야 했던 봉사과 감사가 얼마나 마땅한 것이었는가를 자인한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 남아 있던 신의 잔재, 즉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성(4.41)은 독백이 진행되면서 정념(passion)과 오만과 욕망, 자기기만에 점차적으로 힘을 잃고 파문된다. 이러한 대립적 심리적 자질들이 사탄의 내면에서 벌이는 싸움의 혼탁한 양상은, 한 행이 멀다 하고 숨막히게 이어지는 “그러나”(yet/but)라는 반대 접속사들의 난립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오, 차라리 그의 강력한 운명이 나를  
좀 더 열등한 천사로 임명했더라면, 그랬더라면 행복하게  
우뚝 설 수 있었을 것을. 경계를 모르는 희망이  
야심을 키우지도 않았을 것을. 그러나 어차피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나만큼 강력한 다른 권능의 존재가  
야망을 키웠을 수도 있고, 나는 속아서  
그의 편으로 끌려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만큼 강력한 다른 권능의 존재들은

타락하지 않았고, 흔들림 없이 버텨 섰다. 내면에서부터건,  
 외면에서부터건, 모든 유혹에 대하여 단단한 무장을 하고,  
 네게도 것처럼 버틸 수 있는 똑같은 자유의지와 힘이 있었느냐?  
 그렇다. 그렇다면 그대는 누구를, 무엇을 비난할 것인가.  
 그저 천국의 대가 없는 사랑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졌다는  
 사실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의 사랑을 저주하는 수밖에, 내게 사랑이나 증오는  
 마찬가지로이므로 둘 다 영원한 괴로움일 뿐이니.

O had his powerful destiny ordained  
 Me some inferior angel, I had stood  
 Then happy; no unbounded hope had raised  
 Ambition. Yet why not? some other Power  
 As great might have aspired, and me through mean  
 Drawn to his part; but other Powers as great  
 Fell not, but stand unshaken, from within  
 or from without, to all temptations armed.  
 Hadst thou the same free will and power to stand?  
 Thou hadst. whom hast thou then or what to accuse,  
 But heav'n's free love dealt equally to all?  
 Be then his Love accurst, since love or hate,  
 To me alike, it deals eternal woe. (4.58-70)

신에게 사탄 스스로 저지른 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결정론의 논리는 이  
 미 사탄 자신의 목소리로 충분히 반박된다. 사탄은 자신도 다른 의로운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신의  
 “대가 없는 사랑”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졌음을 시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확한 자기 인식이 이루어진 바로 다음 행에서, 놀랍게도 사탄은 신의 “사랑”  
 그 자체를 온전히 저주하고 만다.

이 반전의 순간은 의미심장하다. 이 순간 또 한번 사탄은 자유의지로 결정적  
 인 선택을 내리고 타락의 순간을 다시 한 번 재현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인식과

실천 사이의 이 감쪽 놀랄 만한 괴리, 그리고 행위를 추동하는 동기의 부조리에 가까운 비논리성은, 또 한 번 “버터 서는” 데 무참하게 실패하는 사탄의 심리적 갈등이 지니는 뚜렷한 알레고리적 성격을 재삼 확인한다. 68행과 69행의 행간에 끼어들어 자명한 합리적 사고의 흐름을 뒤엎은 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역시 야심 내지 오만과 같은 주제넘은 정념이다. 물론 신의 본질인 “사랑” 자체를 저주하는 행위는 사탄의 불행을 조금도 거들어주지 못한다. 죄에 대한 참회를 거부하고 천국의 토포스이자 창조주의 본질인 “사랑”을 축출한 사탄의 내면에 남은 것은 “무한한 분노”(infinite wrath)와 “무한한 절망”(infinite despaire), 즉 그가 어느 쪽으로 날아가든 따라다니는 지옥의 토포스 뿐이다. 그리하여 이쯤 되면 이성의 빛은 이미 사라지고, “그 자신이 지옥”(I myself am hell)이라는 언명으로 내면의 어두운 지옥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인식은 사탄에게 남아 있는 “찬란한 본질”의 흔적을 보여주지만, 끝내 참회와 반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 행, 한 행을 통해 사탄은 끊임없이 갈림길에 서게 되고 끊임없이 죄를 선택한다. 그리고 사탄의 잘못된 선택은 내면에 각인되어 그 자아의 본질을 변형시킨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자기 판단과 양심적 자의식은 빛바래 사라지고, 사탄의 마음속에 결국 남게 되는 것은 거칠게 날뛰는 증오와 절망, 논리 부재의 어지러운 정서적 혼란뿐이다. 자유의지는 미약해지고 결국 무화되며, 사탄은 끝내 자아의 노예가 된다. 구원의 길이 될 수도 있는, 회개와 참회의 가능성도 사탄은 철저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추종자들에게 허세를 들키기 싫다는 자존심을 내세워, “복종”(submission)이라는 구원의 끈을 다시 한 번 거부한다(4.81). 그리고 “희망”(hope)과 “가책”(Remorse)과, 마지막으로 “선”(Good)을 모조리 자신의 내면에서 의도적으로 축출한다(4.108-110).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동요하는 사탄의 내면은, 1권의 처음에 나타나는 지옥의 묘사와 정확히 조응한다. “빛은 없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암흑 뿐”(No light, but rather darkness visible; 1.63)이라든가 “괴로움의 풍경 / 슬픔의 지역, 서러운 그늘들, 평화와 / 휴식이 결코 머물 수 없는 곳, 모든 이를 찾아오는 / 희망이 결코 찾지 않는 곳” (sights of woe, / Regions of sorrow, doleful shades, where

peace / And rest can never dwell, hope never comes / That comes to all; 1.64-7)  
 이라는 묘사는, 내면의 지옥이 외재하는 지옥과 정확히 조응하고 투사하는 거울  
 과 같음을 잘 보여준다. 『낙원상실』에서 이러한 매크로코즘과 마이크로코즘의  
 상호 관계 그 자체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혹은 정치와 윤리/심리의 관계와는  
 무관하다. 예컨대, 타락으로 잃어버린 에덴은 실패한 공화국이고, 아담이 찾아야  
 하는 새로운 내면의 낙원은 사적이고 영적인 구원이라는 식의 단순한 정치적 알  
 레고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히려 이 작품에 무수히 등장하는 서로 조응하는 매크로코즘과 마이크로코  
 즘은 서로가 서로를 마주 보는 한 쌍의 거울처럼 재현한다. 사탄과 마찬가지로,  
 성자는 3권에서 천국의 토포스를 내면화하며, 아담은 타락의 순간, 라파엘이 이  
 야기해준 천국과 지옥의 대전을 내면에서 재현한다. 마음이 독립적인 자기 나  
 림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발언은, 바로 이러한 마이크로코즘과 매크로코  
 즘의 상호 조응에 기대고 있는 『낙원상실』 특유의 알레고리를 상징했을 때에만 제  
 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자기 자신이 곧 지옥이라는 사탄의 토로는,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진실이다. 사탄은 알레고리적으로 곧 지옥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이성이 실패하고 정념이 날뛰는 사탄의 내면은 『낙원회복』(*Paradise  
 Regained*)에서 사탄의 시험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축되고 완성되는 예수 그리  
 스도의 내면—다시 찾은 낙원 그 자체—을 뒤집은 완벽한 반전상(反轉像)이다.

자신의 내면을 지배하는 자, 그리하여  
 열정, 욕망, 그리고 두려움을 통치하는 자가 오히려 제왕이라 할 수 있으니  
 이는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를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민들의 도시도, 고집스러운 대중도  
 감히 지배하겠다고 꿈꾸지 말지어다.  
 그 스스로가 내면의 무정부상태에 속박되어 있으니.

He who reigns within himself, and rules  
 Passions, Desires, and Fears, is more a King;



Which every wise and vertuous man attains.  
 And who attains not, ill aspires to rule  
 Cities of men, or head-strong Multitudes,  
 Subject himself to Anarchy within. (*Paradise Regained*, 2.466-471)

이제 우리는 사탄의 마음속에 내면화된 지옥의 알레고리가 밀튼의 정치사상과 이어지는 점점에 도달한다. 『낙원회복』에 드러나는 예수의 내면에 대한 묘사는 의미심장한 정치적 어휘들로 가득 차 있다. 열정, 욕망, 그리고 두려움을 통치할 수 있는 윤리적 자아의 통어능력은 “시민들의 도시”와 “고집스러운 대중”을 지배하는 실제의 통치행위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어야 한다는 함의는, 밀튼의 내면성—“내면의 낙원”이든 “내면의 지옥”이든—이 외부세계, 혹은 현실정치와 무관한 사적 개념이라는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는 반대증거다.

『낙원상실』에서 인간 내면과 외부 세계의 관계를 다루는 대목은 당대 현실의 정세와 관련된 발언들과 비교적 명시적으로 연결된다.

그대가 처음 타락한 이후로, 참된 자유는  
 사라져 버렸네. 참된 자유는 늘 올바른 이성과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네.  
 인간 내면의 이성이 어두워지거나, 인간이 이성의 명을 따르지 않게 되면,  
 즉시 무절제한 욕망들과  
 주제 모르는 정념들이 이성으로부터 주권을 빼앗아,  
 그 때까지 자유로웠던 인간을  
 굴종으로 전락하게 만든다네. 그러므로 인간이  
 내면에서 값어치가 없는 세력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이성 위에 군림하도록 허락한 이후로,  
 신께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인간을  
 외부적으로 폭력적인 군주 밑에 복속되도록 한 것일세.  
 폭군들은 종종 부당하게 인간의 외부적 자유를  
 구속하곤 하지. 그리고 이러한 폭정은 반드시 존재할 걸세.  
 그렇다고 해서 폭군에게 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끔 나라가 이성이라는 미덕을 잃고

너무나 저열하게 전락하면, 부당함이 아닌  
 정의가 치명적 저주와 결합하여  
 내면에서 잃어버린 자유를  
 외적으로 박탈하기도 한다네.

Since thy original lapse, true Libertie  
 Is lost, which always with right Reason dwells  
 Twinn'd, and from her hath no diuidual being:  
 Reason in man obscur'd, or not obeyd,  
 Immediately inordinate desires  
 And upstart Passions catch the Government  
 From Reason, and to servitude reduce  
 Man till then free. Therefore since he permits  
 Within himself unworthie Powers to reign  
 Over free Reason, God in judgment just  
 Subjects him from without to violent Lords;  
 Who oft as undeservedly enthrall  
 His outward freedom: Tyrannie must be,  
 Though to the Tyrant thereby no excuse.  
 Yet sometimes Nations will decline so low  
 From vertue, which is reason, that no wrong,  
 But Justice, and some fatal curse annex  
 Deprives them of thir outward libertie,  
 Thir inward lost (12.83-101)

정치 주체의 집단들인 국민들이 내면의 낙원을 상실하고 자아의 노예로 타락한 결과는, 집단적인 노예로의 정치적 전락으로 드러난다. 즉, '내면의 낙원'이 정치주체가 갖추어야 할 미덕의 완성된 형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완벽한 통치자의 모델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내면을 모방하는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imitatio Christi*)가 기독교인들의 의무라면, 이를 실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독교인들이 모두 훌륭한 정치적 통치 주체로서 지배의 자격을 갖추어 터이기 때

문이다. 밀튼에게 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가 혁명으로 폭정에서 해방시키고자 했던 영국 국민을 의미했다. 혁명의 실패는 이러한 국민의 미덕이 실패한 결과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지는 “내면의 낙원”이 외부 세계와 맺는 관계를 규정한다. “내면의 낙원”은 이미타티오 크리스티의 언명이며, 또한 정치적 주체로서 자아를 통어하는 능력을 기르는 끊임없는 노력에 목적을 부여하는 정치적 이상이다. 이러한 입장은 종교체의 수장으로서 국왕을 제외하고 평신도들의 집단을 구상한 『종교개혁론』(*Of Reformation*), 나아가 군주제가 주장한 생략적 권리를 철저히 국민의 것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왕을 일개 관료의 하나로, 그리고 ‘사적인 사람’의 일원으로 격하시켰던 『국왕과 관료들의 재직조건』(*The Tenure of Kings and Magistrates*) 등에 피력된 기독교 공화주의 개혁사상과 일치한다. 낙원과 지옥은 정서적, 윤리적, 철학적, 종교적으로 수많은 함의들을 담보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자유와 그리고 굴종적 노예 상태와 연관되는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베넷(Joan S. Bennet)은 사탄의 묘사와 밀튼의 산문들 속에 전형적인 폭군으로서 그려지는 찰스 1세의 초상 사이에서 중요한 유비관계를 찾아내고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자기통어에 실패하여 자아의 노예가 되었다는 점이다(57). 폭정의 근원적 요소는 바로 자기 스스로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self-enslavement)이다. 폭군은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천박한 노예이다. 왜냐하면, 사악한 자가 공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의 야망과 절망 뿐 아니라 자기 추종자들의 야망과 절망에도 노예가 되기 때문이라고 여러 산문들을 통해 밀튼은 주장하고 있다. 사탄이 결정적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추종하는 타락천사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매크로코즘과 마이크로코즘의 특수한 상호 재현이 만들어내는 알레고리의 그물과, 그로 인해 인물의 내면이 담보하게 되는 공간성은 밀튼이 물려받고 의식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르네상스 알레고리의 문학적 유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트립(Mindele Anne Triep)은 아리오스토(Ariosto)나 타쏘(Tasso)를 지나 스펜서(Edmund Spenser), 밀튼으로 이어지는 훌륭한 르네상스 알레고리들이 ‘말 그대

로의' 의미층위와 '숨겨진' 알레고리의 의미 층위 양쪽에서 모두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지적한다(Triep 129-132). 특히 트립이 사용하고 있는 지속적 알레고리(sustained allegory)와 간헐적 알레고리(intermittent allegory)의 개념들은 『낙원상실』의 시학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131-132). 『낙원상실』에는 공간이 죄의 탄생이라든가 지옥과 지구를 연결하는 다리의 건설과 같이 명명백백한 알레고리로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이라든가 아브디엘, 아담과 이브의 형상화처럼 꺾진성을 담보한 서사의 층위도 있기 때문이다. 전자를 가끔 등장하는 간헐적 알레고리라고 할 때, 이 서사시의 기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오히려 후자의 인물들이 감정적 동요와 실패, 시험과 방황을 통해 자기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속적 알레고리다.

우주적 규모의 성경적 서사가 표층적으로 담보하는 교훈적 의미를 완벽하게 보존하면서도 동시에 좀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이데아를 지시하는 알레고리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설득력을 담보할 수 있다. 사탄은 서사의 등장인물이면서 동시에 알레고리로, 두 가지 층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신이나 성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지리적 로쿠스가 또한 심리적 토포스로 기능하고, 그 역이 가능하듯이 말이다. 신이 성경적 서사의 등장인물인 동시에, 신적인 사랑, 카리타스의 원칙을 알레고리적으로 형상화한다면, 그 대극에는 자기에(self-love), 자아에 얽매인 노예상태(self-enslavement)를 알레고리적으로 형상화하는 사탄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역사 속에서 가시적인 모습을 거두지만, 거대한 전장을 내면화한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가 수레를 이끌고 나타나 전장을 평정하고 참된 “내면의 낙원”을 건설할 역사의 끝까지 치열한 전투를 개시할 터이다. 모든 인간의 윤리적 내면은, 바로 이러한 전우주적 갈등이 매순간 일어나는 전장이 된다. 이러한 내적 갈등의 향방이 윤리적 주체를, 곧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주체를 결정하게 된다. 오히려 『낙원상실』에 드러나는 명시적 알레고리의 점층적 내면화는, 정적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정치에서 신앙으로 물러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한 세계를 살고 있는

정치적·윤리적·종교적 행위주체의 다양한 내면성들이 창생(蒼生)하는 기원을 보여주는 정신발생학적 고찰(psychogenesis)에 더 가깝다. 타락한 내면성의 기원을 파헤치는 서사를 따라가면서 독자는 독재와 폭압이라는 타락한 세계의 정치적 필요악이 창생하고 작용하는 기제를 목도하게 되고 그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 독자의 이해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심오하게 정치적이다. 『낙원상실』이 담보하는 정치성은, 이러한 복층의 알레고리를 통해 독자·국민·정치주체의 교육을 맡는 역할로 발현된다.

### III.

그러면 이제 상기의 맥락에서, 『낙원상실』의 문학적 재현과 밀튼의 정치적·종교적 입장의 관계를 짚막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는 밀튼이 과연 신의 정의를 옹호하는데 성공했는가라는 중차대한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논의는 사탄의 캐릭터가 지니는 유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오랜 의문으로 되돌아간다. 사탄의 유혹을 밀튼이 독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놓은 덫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는 피쉬(Stanley Fish)의 논리는 어느 정도 정설의 위상을 굳혔다. 그러나 그로스를 비롯한 평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만주의 시인들이 읽어낸 사탄의 문학적 에너지에 자신도 여전히 매료된다고 고백한다. 사탄의 묘사에서 느껴지는 “극화된 심리의 매혹”(the lure of the dramatized mind) 때문이라는 것이다(Gross 337). 그에 따르면, 사탄은 인간이 움직이고, 상처받고, 기억과 욕망과 감각에 시달릴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시인이 가장 구체적으로 전달한 사례로, “정신, 주관성, 자의식의 이미지” 그 자체다. 아담과 성자는 소위 “완벽한 복화술”을 구사하며 성서 말씀을 여과 없이 그대로 쏟아내기가 일쑤인데, 유일하게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심리를 갖고 있는 캐릭터라 할 만한 존재는 역시 사탄뿐이라는 것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제임슨 역시 밀튼이 형상화에서 실패하여 의도했던 것과

정확히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고 말함으로써, 사탄이라는 캐릭터가 저자의 의도에 반해 지나치게 독자의 공감을 산다고 생각하고 그로스와 같은 진영에 합류했다(Jameson 46). 그러나 형상화의 성패에 대한 인식, 즉 문학성에 대한 판단 역시 밀튼과 제임슨·그로스가 문학성, 그리고 나아가 진실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밀튼이 사탄에게만 유일하게 감정의 실감과 “정신, 주관성, 자의식”의 구체적 이미지를 부여했다면, 그것 역시 애초부터 밀튼의 시작(詩作) 의도에 부합하는 것일지 모른다.

『낙원상실』에서 가장 중요한 재현의 문제는 바로 피조물이 신을 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탄은 『낙원상실』에서 유일하게 신을 재현하는 거울로서의 피조물로 남기를 거부하고, 사탄으로서 스스로를 창조한 존재다. “신과 닮은 존재”(Divine similitude; 3.384)인 성자는 최대한 근접하게 신을 재현하는 피조물이며, 사탄은 최대한 신과 다른 존재가 되겠다고 재현의 끈을 스스로 끊어낸 피조물이다. 재현의 행위는 주체적 의지와 욕망을 최대한 포기하면 할수록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특수한 행위이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미덕은 자신이 재현하는 근원에게 모든 권위를 철저히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죄악은, 재현이자 모방에 불과한 존재가 근원의 권위를 탈취하고 사칭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우상파괴자』(*Eikonoklastes*)에서 논한 바와 같이 찰스 1세를 비롯한 모든 군주가 폭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이 그에게 부여한 바 없는, 자신의 것이 아닌 권위를 찬탈하는 찬탈자이자 왜곡된 재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시학에도 적용되는 듯하다. 케리건(William Kerrigan)의 표현대로, 밀튼의 시학에서는 “해석이라는 순종적인 노동이 시의 자유로운 상상력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드러난다(132). 시인으로서 밀튼은 스펜서와 마찬가지로 시인이 해야 할 일이 창조가 아니라 진실의 증재라고 믿었다. 다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일들을 “보고 이야기해”(see and tell) 주기 위해서는, 성스러운 영감의 매개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시인은 선지자와 유사한 존재였고, 그의 소명은 허구의 창조가 아니라 진실, 특히 성경적 진실의 증재였다. 그러

나 근원과 의미에서 떨어져 나간 존재인 사탄의 재현에는 어쩔 수 없이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가 필요했다. 이런 맥락에서 길로리(John Guillory)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는데, 그에 따르면 밀튼과 같은 프로테스탄트 시인에게 셰익스피어의 문학이 근거한 상상력은 “욕망의 가면에 불과할 뿐”이며 현상과 소망 사이를 채워주는 허망한 꿈과 다를 바 없게 여겨졌다고 한다. 스스로를 기의로 지칭하며, 아무런 실제적 근원도 없는 거짓된 메시지인 픽션은 근원(origin)의 권위를 찬탈한 재현으로, 그 자체로 사탄적인 것이라는 것이다(Guillory 13). 밀튼이 볼 때, 생생한 픽션의 자치성은 결코 문학적 담론의 미덕이 될 수 없었다. 픽션 혹은 셰익스피어적 상상력에 대한 밀튼의 불신은 『우상파괴자』에서 『리처드 3세』(Richard III)를 인용하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3.530). 특히 밀튼이 이러한 허구가 찰스 1세를 비롯한 모사꾼·폭군들의 거짓된 언어를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그로스과 제임슨을 비롯한 현대 독자들의 사탄에 대한 매혹은, 어쩌면 픽션에 대한 매혹 그 자체인지 모른다. 현대의 독자들은 시인을 조물주로 여기고, 문학성의 근본적 권위를 상상력에 부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스스로를 조물주의 재현이라고 인식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이 예수의 삶을 예징한다는 의식은 없으며, 주관성으로 근원을 대체한지 오래 되었다. 그러나 밀튼의 세계에서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재현하고, 인간의 역사가 성서의 역사를 재현하고, 인간의 내면이 우주의 갈등을 재현하며, 지구는 황금 사슬로 천국에 매달려 있거나, 거대한 다리로 지옥과 통해 있다. 밀튼의 세계는 “진실”을 지향하고 투영하는 “희미한 예징들”(shadowy types)의 세계다(12.303). 시인 밀튼의 정치성이나 『낙원상실』의 문학성을 논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세계와 그의 세계가 갈라지는 지점, 이러한 역사적 차이의 정당한 고려일 것이다.

주제어: 존 밀튼, 『낙원상실』, 사탄의 독백, 내면의 낙원, 알레고리, 정치성과 시학, 재현

## 인용문헌

- Bennett, Joan S. *Reviving Liberty: Radical Christian Humanism in Milton's Great Poems*. Cambridge, Mass.: Harvard UP, 1989.
- Fallon, Robert T. *Divided Empire: Milton's Political Imagery*.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P, 1995.
- Fish, Stanley. *Surprised By Sin: the Reader in Paradise Lost*.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1.
- Gross, Kenneth. "Satan and the Romantic Satan." *Re-membering Milton*. Ed. Mary Nyquist and Margaret W. Ferguson. London: Methuen, 1987. 318-41.
- Grossman, Marshall. "*Authors to Themselves*": *Milton and the Revelation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P, 1987.
- Guillory, John. *Poetic Authority: Spenser, Milton, and Literary History*. New York: Columbia UP, 1983.
- Jameson, Fredric. "Religion and Ideology: A Political Reading of *Paradise Lost*." *Literature, Politics and Theory: Papers from the Essex Conference 1976-84*. Ed. Francis Barker, Peter Hulme, Margaret Iversen, and Diana Loxley. London: Methuen, 1988. 35-56.
- Kerrigan, William. *The Sacred Complex: On the Psychogenesis of Paradise Lost*. Cambridge, Mass.: Harvard UP, 1983.
- Kolbrenner, William. *Milton's Warring Angels: A Study of Critical Engagement*. Cambridge: Cambridge UP, 1997.
- Loewenstein, David. *Milton and the Drama of History: Historical Vision, Iconoclasm,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Cambridge: Cambridge UP, 1990.
- Milton, John. *John Milton: Complete Poems and Major Prose*. Ed. Merritt Y.



- Hughes. Indianapolis: Odyssey, 1957.
- \_\_\_\_\_. *The Complete Prose Works of John Milton*. Don M. Wolfe, gen. ed. 8 vols. New Haven: Yale UP, 1982.
- Mueller, Janel. "Embodying the Glory: the Apocalyptic Strain in Milton's *Of Reformation*." *Politics, Poetics, and Hermeneutics in Milton's Prose*. Ed. David Loewenstein and James Grantham Turner. Cambridge: Cambridge UP, 1990. 9-40.
- Murrin, Michael. *The Allegorical Epic: Essays in Its Rise and Decline*. Chicago: U of Chicago P, 1980.
- Patterson, Annabel M. *Reading Between the Lines*. Madison: U of Wisconsin P, 1993.
- Quilligan, Maureen. *The Language of Allegory: Defining the Genre*. Ithaca: Cornell UP, 1979.
- \_\_\_\_\_. *Milton's Spenser: The Politics of Reading*. Ithaca: Cornell UP, 1983.
- Sharpe, Kevin. "'An Image Doting Rabble': The Failure of Republican Culture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Refiguring Revolutions*. Ed. Kevin Sharpe and Steven N. Zwicker.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98. 25-56.
- Treip, Mindele Anne. *Allegorical Poetics and the Epic: The Renaissance Tradition to Paradise Lost*. Lexington: U of Kentucky P, 1994.
- Worden, Blair. "Milton's Republicanism and the Tyranny of Heaven." *Machiavelli and Republicanism*. Ed. Gisela Bock, Quentin Skinner, and Maurizio Viroli. Cambridge: Cambridge UP, 1990. 225-45.

## “Hell within him”: A Commentary on the Politics of *Paradise Lost*

Abstract

Sunhyung Kim

This paper is a close analysis of Satan’s famous monologue at the beginning of *Paradise Lost*, Book 4, as an inscription of the poem’s poetics interlocking with its politics.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locates the allegorical poetics of *Paradise Lost* in a political context and demonstrates that the concept of “paradise within,” reputed to be a token of Milton’s newly-adopted escapism, is actually the locus of his ongoing political engagement in *Paradise Lost*. The second part re-examines Milton’s complex idea of “representation” in this light in order to repudiate the argument of some critics that Milton’s poetics inadvertently subverts his official purpose of the poem, thus failing his politics. Central to both arguments is the passage describing Satan’s inner conflict in Book 4. The way Hell as a geographical locus gradually re-establishes itself in Satan’s mind as a set of psychological topoi illustrates how to read the “paradise within.” Hell inside Satan is a reverse image of the perfectly ordered inside of Jesus, indeed a paradise within celebrated in *Paradise Regained*. These complex loci are depicted in obvious political terms, warranting a highly politicized reading of the prophesy of “paradise within” and *Paradise Lost* itself.

Key words

John Milton, *Paradise Lost*, Satan’s monologue, paradise within, allegory, politics and poetics, representation